

# 해제 : 포클로어와 매스미디어

## 독일의 타블로이드지를 중심으로

박승현

훗쿄 하카루는 게이오기주쿠 대학 문학연구과의 민속학·고고학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대학의 민속학연구소인 Albert-Ludwigs Universität Freiburg, Philosophische Fakultät, Institut für Volkskunde)에서 유럽민속학, 특히 현대 독일민속학의 최신동향을 탐구한 연구자이다.

이 글은 『世間化研究』제 10호(世間化研究会, 2000)에 실린 저자의 연구논문을 번역한 것으로, 독일의 타블로이드 신문을 중심으로 한 매스미디어와 현대의 포클로어의 관계를 규명한 글이다. 저자는 현대 사회에서 포클로어의 수집 및 유통이 민속학자들과 같은 전문가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, 타블로이드 신문과 같은 가장 대중적인 매스미디어에 의해 압도적인 분량으로 생산되는 현실에 주목한다. 그리고 이러한 일종의 문화적 소비재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들의 <말하기>의 스타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물음을 던지면서, 이 엄청난 매스미디어의 산물들을 자료화해서 실제의 이야기와 대조하면서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민속학의 새로운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.

포클로어가 세대 간의 전승에 그 본질이 있다고 할 때, 매일 신문의 일정 지면을 차지하는 <도시 전설>은 당대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대상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민속학이 이런 대상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.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속학의 새로운 연구대상을 발굴하고, 그 의미를 규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,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.

